

## 중국어 해음(諧音)의 인지 과정 고찰

정은\*

### 【목 차】

1. 서론
2. 해음의 코드 전환 유형 분석
  - 1) 교체형
  - 2) 변이형
3. 해음의 인지 과정 분석
  - 1) 개념적 혼성 이론
  - 2) 해음의 생성과 이해의 인지 과정
4. 결론

### 【초록】

본 논문에서는 먼저 언어의 형태와 구조의 관점에서 중국어 해음을 문장 내 코드 전환이 실현된 것으로서 보고 교체언어의 실현 양상에 따라 교체형과 변이형으로 나누어 그 유형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인지언어학의 개념적 혼성 이론을 해석의 근거로 삼아 앞선 유형 분류에서 소개한 해음의 예 가운데 ‘杯具-悲劇’, ‘海龟-海归’, ‘BC-白痴’를 중심으로 해음의 생성과 이해의 인지과정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음 현상은 ‘해음 감지→발음의 유사성을 매개로 한 연상 작용→본래 글자 추출→입력공간 구축→공간횡단 사상을 통한 입력공간 연결→투사를 통한 혼성공간 형성→개념적 혼성과정을 통한 발현구조 창조→해음의 생성과 이해’의 인지 과정을 거침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해음, 언어 변이, 코드 전환, 인지언어학, 개념적 혼성 이론

\* 신라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중어중국학전공 조교수(교육전담) (jungeun@silla.ac.kr)

## 1. 서론

중국어 속 해음(諧音) 현상은 음이 같거나 유사한 글자 즉 해음을 활용하여 다른 의미를 연상하는 것을 일컫는다. 결혼, 출산, 장례 등의 기복어로 또 명절과 같은 전통 민간풍속 및 금기어, 피휘, 길상어, 험후어 등 고금을 막론하고 중국인들의 생활 속에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사, 곡, 소설 등 문학 작품 속에서의 활용도도 높다. 또한 풍자적, 해학 적일뿐만 아니라 풍부한 함의까지 담아낼 수 있어 언어유희의 차원을 넘어 뿌리 깊은 중국 전통문화 현상 중의 하나로 화법 예술을 형성하고 있다.

- (1) 秃子打伞—无发无天。(无法无天)
- (2) 家乐福 (Carrefour)
- (3) 碎碎平安 (岁岁平安)
- (4) 一颗心值多少钱? → 一亿。(一心一意)

예 (1)은 상용되는 험후어이고, 예 (2)는 외래어 브랜드 네임 음역에 해음을 활용한 예이며, 예 (3)은 불길함을 해음을 통해 길조로 바꾸어 생각하는 상용표현이고, (4)는 성어를 활용한 해음 수수께끼이다. 이처럼 중국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해음은 단순히 자체의 풍자적이고 해학적이며 유머러스한 표현, 여운, 함축의미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사유와 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적 특성이 깊이 녹아들어 있어 언어학적 가치도 높다. 따라서 해음에 대한 국내외의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 다만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해음을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고 문화·민속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거나 해음의 내재적 관계에 따른 분류, 화용가치나 수사적 표현에 집중하였다.<sup>1)</sup> 중국인들의 뿌리 깊은 문화의식 또는 사회의식 등에서 출발한 해음은 오늘날 인터넷 등 각종 매체의 발달로 더욱 다양한 형식의 언어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해음은 어떠한 인지 과정을 거쳐 생성되고 해석되는 것일까? 본 논문은 해음 현상을 다시 세분하여 재분류<sup>2)</sup>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코드<sup>3)</sup> 전

1) 해음과 관련된 국내외의 논문을 몇 편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기정(2000)은 험후어에 사용된 해음의 유형과 범위를 밝혔다. 이재승(2000)은 민속 어휘 속에 등장하는 해음의 유형을 통해 문화와의 내재적 관계를 고찰하였다. 김수영(2007)은 가정의례, 생업을 중심으로 민속 범위 속에서 해음을 고찰하였다. 한명숙(2008)은 해음의 유형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류하고 중국인의 문화와 심리 상호간의 연계성을 탐구하였다. 周虹(2009)은 한족의 결혼풍속을 중심으로 해음의 생성과 민속물의 상징의미가 구축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김중호(2010)는 정보의 양, 공간, 시간 및 전달이라는 문화유형적 관점에서 해음의 고맥락적 특징을 무언성, 일체성, 복시성, 완곡성으로 설명하였다. 陈培(2010)는 심리모형을 기반으로한 화용 유추 이론을 바탕으로 해음의 생성과 이해 기제를 제시하였다. 周翠英·姜昌求(2011)는 구해음을 바탕으로 신해음의 특징을 원형을 대체한 것, 의미가 더욱 풍부해진 것, 표현이 더욱 형상화된 것, 허구가 변형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杨思源(2012)은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해음 광고어들을 분석하였다. 王宏军(2018)은 사회언어학 연구범주를 이론 기초로 인터넷 해음의 구성방식과 화용가치에 대해 분석하였다.

2) 학자들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해음을 세분하여 유형화하는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고 본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하면, 전선영(2009)은 해음을 소리에 따라 절대-상대-근대 해음으로, 형태에 따라 동

환(code-switching) 실현의 관점에서 해음의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해음이 어떻게 생성되고 이해되는지 그 인지과정을 고찰하고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료 혹은 예문은 혈후어, 길상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신해음<sup>4)</sup>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기존의 논문이나 신문, 서적 또는 중국어 화자의 도움을 빌어 중국 청소년들의 일상 언어, 인터넷, 영화, 광고용어 등에서 발췌하였다. 다만 해음이 형성되고 사용되는 것에 있어 어떤 것은 무심결에 형성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미 생활 속에 융합되어 표현이 다채롭기 때문에 더러는 그 기원 배경을 찾아내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가능한 그 배경을 찾아 해음의 재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다만 본문의 목적은 해음의 유형과 특징을 세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해음이 생성되고 이해되는 인지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바 먼저 언어의 형태와 구조의 관점에서 해음이 형성되는 코드 전환 유형을 예를 들어 살펴보고, 그 중 세 가지 예 ‘杯具-悲劇’, ‘海龟-海归’, ‘BC-白痴’를 중심으로<sup>5)</sup>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의 개념적 혼성 이론(conceptual blending theory)을 해석의 근거로 삼아 해음의 생성과 이해의 인지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해음의 코드 전환 유형 분석

본 장에서는 중국어 해음이 문장 내 코드 전환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코드 전환이 실현되는 유형에 따라 해음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코드 전환(code-switching)은 단일 언어 사용 상황에서 화자들이 방언이나 상황 변이어(register)<sup>6)</sup> 등을 바꿔 가며 말하거나 이중 또는 다중 언어 사용 상황에서 화자가 이미 사용하

형-이형 해음으로, 용도에 따라 호칭-직종-생활 해음으로, 구성성분에 따라 한자-외래어-숫자-연속 해음으로, 구조에 따라 음절-문법 해음으로, 수사방법에 따라 해음쌍관(双关), 정백(正白), 석자(析字), 모방(仿似), 접련(拈连), 장사(藏词), 용전(用典), 대우(对偶), 곡해(曲解), 전환(转折), 단취(段取), 피휘(避讳), 실물 해음으로, 문화에 따라 대화, 유머, 민속, 회화, 지명, 음역외래어, 방언, 혈후어, 피휘 등으로 분류하였다.

- 3) 언어학자들이 사용하는 코드(code)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언어를 비롯한 모든 기호 체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는 언어와 방언의 관계에 대한 모호성이나 방언과 변이어가 가지는 부정적 함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립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언어 또는 동일 언어의 완전히 다른 변이어(variety)를 가리키는 의미뿐만 아니라 말투(style)나 상황 변이어(register)의 개념까지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강현석 외 9명, 『사회언어학 :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 글로벌컨텐츠, 2014, p.362.
- 4)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해음을 구해음과 신해음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나 해음의 명칭과 유형 및 정의는 아직까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구해음은 전통 해음을 일컫는 것으로 민간풍속, 길상어, 금기와 피휘 등 일상생활 및 시, 사, 곡 등 문학작품까지 포괄하여 일컫는 반면, 신해음은 최근에 주로 인터넷, 광고, TV, 영화 등의 영역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해음으로 분류한다.
- 5) 세 가지 예는 해음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유형인 오자형과 동음이의형 가운데 상용되는 예를 각각 하나씩 추출하였고, 나머지 하나는 변이형 중 상용되는 예를 임의로 선정한 것이다.
- 6) 상황 변이어는 메시지(message: 언어나 기호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 내용)의 전달과정에 따라 대체로 다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맥락(脈絡: 전후관계, 배경)에 따른 상황 변이어. 예) 나/저-본인

고 있던 언어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코드 전환은 그것이 발생하는 언어적 단위에 따라 하나의 절이나 문장 안에서 코드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를 문장 내 코드 전환(intra-sentential code-switching)이라고 하고, 절이나 문장들의 경계에서 코드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를 문장 간 코드 전환(inter-sentential code-switching)이라고 한다. 코드 혼용(code-mixing)은 대화 참여자나 주제, 대화 배경 등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의 문장이나 구절 내에서 두 코드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흔히 문장 내 코드 전환을 일컫는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sup>7)</sup> 문장 내 코드 전환은 기본적인 문장구조의 틀을 형성하는 행렬언어(matrix language)와 다른 언어의 문법범주나 어휘범주가 삽입되는 교체언어(embedded language)로 구성된다.<sup>8)</sup> 중국어 해음은 문장 내 코드 전환이 실현된 것으로서 교체언어의 실현 양상에 따라 교체형 및 변이형으로 나눌 수 있다.

## 1) 교체형

교체형은 중국어 보통화와 보통화 또는 보통화와 방언 사이 및 중국어와 숫자 혹은 영어(기타언어)<sup>9)</sup> 사이에 코드 전환이 실현되는 유형이다. 교체형은 형태소, 단어, 구, 문장 등 여러 범주의 경계에서 실현이 가능하다.

(2) 매체(媒體: 표현의 도구)에 따른 상황 변이어. 예) 한테(구어)-에게(문어)

(3) 내용(또는 주제)에 따른 상황 변이어. 예) 소금(일상)-염화나트륨(전문)

(4) 특정 대화 상대에 따른 상황 변이어. 예) 먹을 것-맘마(유아어)

이처럼 상황 변이어는 대화의 상황에 따라 일상어를 대체하여 쓰는 언어 표현들로, 그 자체로 독립된 체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란 기본적으로 사회적 상황일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으로 조건된 상황 변이어가 사회 방언의 하나임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을 따르면, 사회 방언은 결국 화자 고유의 특성과 관련된 것(예: 반촌어)과 대화 상황과 관련된 것(예: 은어) 두 종류로 나누어지며, 한 언어에서 사회적으로 분화·확대된 변종의 의미와 함께 독립된 언어 체계를 갖추지 않아도 ‘방언’으로 부를 수 있게 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에서 인용(검색일:2018.07.30)). 본고에서는 중국어 해음을 중국어 표준어 내에서 및 표준어와 방언 사이 또는 중국어와 외국어 사이, 중국어와 숫자 사이에서 개별 어휘나 구 차원의 코드 전환 또는 혼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일종의 상황 변이어이며, 코드 전환에 의한 것이라고 전제한다.

7) 강현석 외, 위의 책, p.365, p.368 ; 코드 전환은 통사론적 관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문장 내 코드 전환과 문장 외 코드 전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거나 어느 한 부분만을 칭하기도 한다. Hamers,J.F & Blacnc.M.H.A(1987)은 코드 전환을 코드 혼용과 코드 교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코드 전환을 정의하였고, Bokamba(1987)은 한 문장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코드 혼용으로 문장 경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코드 전환으로 불렀다. 결국 코드 전환이란 용어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대체로 문장을 기준으로 형태소부터 담화 경계까지 범위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소영, 「이중언어 사용자의 코드 스위칭의 유형과 원인 분석」, 『한어문교육』, 제26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2, pp.210-211 재인용.) 본고에서는 Hamers,J.F & Blacnc.M.H.A(1987)의 정의에 따라 코드 전환을 코드 혼용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한다.

8) 김선호, 「한국 화교의 한중 코드전환 구조의 분석」, 『어문학』, 제139집, 한국어문학회, 2018, p.6.

9) 기타언어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해음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한국어 단어와 해음 관계인 ‘오빠-歐巴’, 일본어와 해음 관계를 형성하는 ‘可愛い-卡哇伊’, ‘おばさん-欧巴桑’, ‘一番-一级棒’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영어와 비교하였을 때 그 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영어를 기본 대상으로 삼는다.

보통화 어휘 사이 또는 보통화와 방언 사이의 코드 전환은 다시 오자(誤字)형과 동음이의형, 방언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어 해음 현상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다. 그리고 중국어와 숫자 혹은 영어 사이의 코드 전환은 각각 숫자교체형, 영어교체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5) 斑竹-版主, 杯具-悲剧, 果酱-过奖, 童鞋-同学, 鸭梨-压力
- (6) 大虾-大侠, 海龟-海归, 菌男-俊男, 驴友-旅友, 霉(没)女-美女
- (7) 步步糕升-步步高升, 年年有鱼-年年有余, 碎碎平安-岁岁平安
- (8) 妻管严-气管炎, 千斤小姐-千金小姐, 前途无量-钱途无量, 一语成灾-一雨成灾
- (9) 灰机-飞机, 山寨-杂牌, 肿么了-怎么了

오자형은<sup>10)</sup> 오자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교체를 진행하는 유형으로 위 예문 (5)-(6)과 같다. 예 (5)는 본래 글자를 형태와 의미가 전혀 다른 새로운 단어로 전격 교체하는 것으로 단어와 단어가 코드 전환된 경우인데, 해음으로 본래 글자와의 관계를 연상하고 의미를 유추하게 하는 것이다. 발음상의 유사함 이외에 관련성이 전무해 보이는 단어를 고의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본래 글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예 (6)은 본래 글자의 하나 혹은 몇 개의 형태소만 코드 전환된 경우이다. 위 예문 (5)-(6)의 예들은 해음자와 본래 글자 사이에 어떤 관련성도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이렇게 우연한 또는 고의적인 오자 교체라 할지라도 일부 해음자는 본래 글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의미가 유추, 파생되기도 하고 코드 전환 단계에서 환유가 작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3장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동음이의형은 고의로 하나 이상의 형태소를 코드 전환하는 점에서는 오자형과 유사한 듯 하지만 교체된 형태소로 인해 본래 글자와는 상이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분명하며, 주로 성어나 관용구를 활용하는 표현이 많다. 예문 (7)의 예들은 모두 중국어 속 덕담을 행렬언어로 기준삼아 그 내부 형태소의 일부를 교체함으로써 코드 전환이 실행된 것이다. 예문 (8)의 예들도 이와 비슷한데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 속어, 성어 등을 활용하여 그 중 일부 혹은 전체를 발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로 교체하여 화자의 의중을 드러내는 전환 방법이다.

방언형은 보통화와 방언 사이에서 코드 전환이 발생한 경우로 방언의 독특한 발음이나 성조의 영향을 받거나 방언 어휘를 차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예 (9)의 ‘灰机[huiji]’는 민(闽)방언에서 성모 ‘f’와 ‘h’의 구분이 불분명한 음운상의 차이가 형태적인 전환으로 이어진 것으로 민방언에서 ‘飞机’를 ‘hui ki(주음부호:ㄏㄨㄟㄙㄧˊ)’<sup>11)</sup>라고 읽는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 ‘山寨’<sup>12)</sup>는 월(粤)방언에서 모조품을 가리키는 의미로 파생되어 상용되던 것을 보통화에 적극적

10) 오자형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는 대부분 신해음 현상 초기 컴퓨터의 광범위한 사용 및 인터넷의 보급과 관련 있다고 본다. 중국어는 대부분 형성자이며 따라서 동음자가 많은 특징으로 말미암아 컴퓨터상에서 중국어를 입력할 때 본래 의도했던 글자보다 순서적으로 먼저 위치하거나 우선 선택되는 오자가 표기되고 그 오자가 대화 상대방과의 교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미있게 여기게 되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11) 내용 출처: <http://tw.yahoo.com>(검색일:2018.08.10)

12) ‘모조품, 위조품’을 의미하는 ‘山寨’의 유래에 관하여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먼저 1990년대 중국 심천에서 유래한 것으로 심천은 지리적 이점으로 휴대폰이 밀거래되다가 모방 제작까지 하게 되는데,

으로 활용한 예이다. ‘肿么了’는 산둥조장(山东枣庄)방언에서 ‘怎么’를 ‘zhong me’로 읽는 것에서부터 생성된 것이다. 이들 모두 각각 성모, 운모, 어휘 등 음운적 요소의 영향과 단어 차용으로 형태상의 코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다수의 해음은 위에서 설명한 오자 또는 동음이의어를 통한 코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형성된 해음은 신문이나 뉴스, 광고, 영화, TV, 수수께끼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이나 청소년용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10) 类诺瓦斯克病毒来袭 疫情拉警报 - 病者拉肚子

(11) 瘦不了, 想瘦

(12) 小学时上课爱睡觉, 一次语文课老师布置作业写一篇作文, 题目是‘假如我是蜘蛛’. 下课了问了同学, 晚上在家绞尽脑汁的写了一篇轰动全校的‘假如我是只猪’. 后来我在学校火了。

위에서 예문 (10)은 신문에 실린 표제어인데 다의어 ‘拉’를 통사적, 의미적으로 활용한 해음이다. 예문 (11)은 ‘受不了’와 ‘享受’를 활용한 다이어트 광고로 중국인들이 자주 활용하는 구와 단어를 행렬언어로 삼아 음의 유사성을 기저로 하는 교체단어 ‘瘦’를 교체 삽입함으로써 해음이 완성된 것이다. 이와 같이 표제어와 광고용어 속에도 아주 왕성하게 해음을 활용하는데 이는 생소하지만 결코 낯설지 않은 표현을 통해 독자나 청자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느낌을 부여함으로써 깊은 인상을 남기고 주의를 끄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문 (12)은 일상생활 속에서 해음으로 파생된 오해에 관한 글을 발췌한 것이다. 청자가 화자의 언어지식이나 기타 언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초래된 의미상의 오해를 나타내고 있다. 동음자나 동음이의어가 많은 중국어는 화자가 담화 내용을 부호화하고 청자가 해독할 때 동음이의에 근거하여 언어 내용에 대한 서로 다른 해독을 하게 되므로 중의현상(ambiguity)을 야기하기도 한다. 한편 화자는 발화 시에 종종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해음을 활용하여 화자 자신의 깊은 뜻을 전함으로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쾌하지 않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람 혹은 상황을 풍자하고자 하는데 위 예문 (13)이 바로 그러한 예 가운데 하나이다.

(13) 一天, 纪晓岚去和珅家作客时, 进来一只狗。和珅指着狗说: ‘请问侍郎大人, 这是狼是狗啊?’ 纪晓岚不紧不慢地还击说: ‘没想到尚书大人连这都不知道。告诉你, 记住了, 看尾巴, 上竖是狗。’

중국 청나라 건륭황제 때 당시 ‘侍郎’ 관직의 ‘纪晓岚’과 ‘尚书’였던 ‘和珅’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지혜다툼의 일화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화자 되는 대화인데, 두 사람

---

처음에는 생산 공장의 지명을 새기지 못하고 ‘SZ’ 이니셜만 남겼고 훗날 ‘山寨’로 불리게 되었다. 두 번째 설은 홍콩에서 제기된 것으로 홍콩에서는 소규모로 경영하는 공장이나 가내공업을 ‘山寨’로,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山寨货’라 조소하며 칭하였는데, 월(粵) 방언에서 ‘山寨’는 “不正规” 또는 “不正统”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70년대 말 개혁개방과 더불어 내륙으로 전파되면서 ‘山寨’로 약칭되었으며, ‘山寨厂’에서 생산되는 ‘山寨货’는 대부분 모조품이었기 때문에 ‘山寨’에 ‘모방, 복제, 위조’의 의미가 파생되었다.(내용 출처: <http://www.baidu.com>(검색일:2018.08.10))

앞으로 개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和珅’이 해음을 활용하여 ‘侍郎是狗’라고 문자 ‘纪晓岚’이 ‘尚书是狗’라고 재치 있게 응수하며 서로를 풍자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숫자교체형은 인터넷 상에서 상용되는 표현 가운데 특수한 목적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보다 신속하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숫자로 단어나 구, 문장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가리킨다. 아래 예 (14)는 바로 이러한 숫자 해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숫자와 중국어 단어, 구, 문장 사이에 코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숫자 해음 현상은 유사음만을 쫓아 의사소통의 편리함과 즐거움만을 꾀하는 것으로 이런 현상들의 대부분은 청소년 문화에서 나타나는데 현 사회에서 청소년들도 주요 소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업성 짙은 광고용어에 청소년들을 흡인하기 위한 이러한 숫자용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14) 520-我爱你, 995-救救我, 1314-一生一死, 9494-就是就是

(15) 酷-cool, 当-download, 粉丝-fans, 爱老虎油-I love you

(16) Happy 牛 year-Happy new year, 顺利欧趴-顺利 all pass

(17) 少了一本书, 猜一成语? → 缺一不可-缺一BOOK, 非来BOOK-非来不可

(18) 健康e白粉, 生活e起来, 股市e级棒(e--)

(19) 到底哪个人是最失败的人了? → 蜘蛛人-spider man

(20) 即使住国外, 重男轻女的观念还是很难改……, 朋友第一胎生了个女儿, 公公婆婆盼孙, 但现在都什么时代了, 又不好取个什么招弟、来弟, 于是还是给她取了个很优美的名字, 在美国当然要取个洋名嘛, 结果公公取了Judy, 不巧二胎还是女儿, 于是英文名字不免俗地取了Wendy, 最后很幸运地终于生了个男孩Andy-End, 终于可以结束了。

한편 중국에서도 영어는 우리나라처럼 공식 언어로 사용되지 않고 세계어로서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외국어로 교육하고 있다. 개혁개방이후 사회적으로 영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식 영어 변이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중 하나의 형태가 중국어-영어 코드 전환을 활용한 해음의 생성이다.

예문 (15)-(19)는 중국어와 영어의 단어, 구, 문장 사이의 코드 전환 예들이다. 상용어, 유행어, 광고, 수수께끼, 일반 문장 등에서 중국어 단어와 영어 단어(酷-cool 등), 음역에 의한 의미 없는 중국어와 영어 문장(爱老虎油-I love you), 중국어 구와 영어 단어(不可-BOOK), 중국어 형태소와 영어 음소(e-- )가 코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어-영어가 코드 전환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 예 (16)은 영어의 신년인사 문구를 기저로 마침 2009년 소의 해를 맞이하게 된 중국에서 발음이 유사한 두 어휘 ‘new’와 ‘牛’ 부분만을 교체한 영어와 중국어를 혼용한 표현이다. 예 (20)은 남존여비라는 구시대적 관습을 자조적으로 적은 글의 일부이다. 여기서는 중국어와 영어의 해음 관계를 사람의 이름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 영문명 ‘Judy’는 중국명 ‘招弟’의 의미를 나타내고, ‘Wendy’는 ‘稳弟’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교적 촌스럽고 구시대적으로 느껴지는 중국명을 음이 유사한 영어명으로 코드 전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어-영어 코드 전환은 주로 영어의 명사 혹은 명사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많은데 이는 어휘의미, 형태, 통사, 화용적 측면 등 두 언어 사이의 구조적 차이로 인하여 단어 선택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2) 변이형

변이형은 교체언어의 구성요소가 코드 전환 과정에서 음운적,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형으로 축약형과 모방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축약형은 시간을 단축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병음축약형, 혼합축약형, 설명축약형, 합음축약형으로 나눌 수 있다.

- (21) BC-白痴, BD-笨蛋, BT-变态, PMP-拍马屁
- (22) 打PP-打屁股, I服了U-我服了你, 不好14-不好意思, qu4-去死
- (23) 不错-长得难看不是你的错, 可爱-可怜无人爱, 讨厌-讨人喜欢百看不厌
- (24) 包-不好, 表-不要, 酱紫-这样子, 考-可好

위 예 (21)-(24)는 각각 축약형의 4가지 유형별 예이다. 예 (21)은 병음축약형의 예들로 본래 글자의 병음 중 각 음절의 초성만으로 어휘의미까지 대체하는 음운적, 형태적 변이를 통한 코드 전환이 실현된 것이다. 예 (22)는 중국어-병음축약형, 중국어-영어축약형, 중국어-숫자, 병음-숫자로 구성되는 구 또는 문장인데 중국어와 숫자 혹은 영어가 복잡하게 혼용된 경우로 이 역시 음운적, 형태적 변이를 통한 코드 전환이다. 예 (23)은 기존 단어를 형태상의 변화 없이 그대로 활용하나 각 형태소를 개별적으로 풀이함으로써 본래 단어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생성해 내는 것으로 단어 본래의 어휘의미는 파괴되었지만 단어와 문장 사이의 코드 전환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의미모순적인 기발함은 표현을 더욱 해학적이고 강렬하게 한다. 예 (24)는 방언의 합음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데, 특히 민남어와 오방언 지역 사람들은 대화 속도가 빨라 몇 개의 음을 연이어 말함으로써 합음 또는 연음 현상을 야기한다.<sup>13)</sup> 위 예들은 바로 이러한 합음 또는 연음에 의한 코드 전환이다.

앞선 해음의 여러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발음의 유사함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이에 반해 모방형은 의미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음이 생성되는 비교적 특수한 해음 방식이다. 즉 아래 예 (25)-(27)와 같이 기존의 글자와 발음이 동일하거나 예 (28)과 같이 발음이 유사한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져 통용되는 경우로 단어와 단어의 코드 전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25) 冏[jiǒng]-囧-窘<sup>14)</sup>
- (26) 砵[lè]-乐, 罍[méi]-梅, 孖[zi]-滋
- (27) 尕-光, 犂-犂, 𪛗-叫, 爻-潮, 忒-仁, 天-天
- (28) 甕[biáo]-不要, 戛[bù]-功夫, 怒[hào]-好心, 爕[jiào]-只要, 孬[nào]-不好

13) 王宏军, 「网络谐音词的语用认知」, 『嘉兴学院学报』, 第2期, 2018, p.76.

14) 모방형에 소개되고 있는 예들은 吉益民(『网络变异语言现象的认知研究』, 南京师范大学出版, 2012, p.105-112) 및 百度에서 발췌한 것임.



예 (25)는 상형자를 모방한 경우이다. ‘빛’이라는 의미를 가진 ‘冏’의 문자 이미지를 활용하여 인터넷에서 가장 유행하는 표정부호인 ‘囧’이 창조되었는데 21세기 가장 성행한 1음절 한자라 일컬어지는 ‘囧’은 사람 입모양의 ‘口’와 처진 눈썹 모양의 ‘八’자로 사람의 얼굴을 형상화하고, ‘깊은 생각에 빠진 모양’ 또는 ‘우울함, 상심, 유감, 난처함’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26)-(27)은 회의자의 형성 방식과 흡사하게 글자의 형상과 의미를 서로 합성한 것으로 본래의 의미와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는 유형이다. 먼저 예 (26)의 예들은 같은 글자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글자들로 마치 동체회의자의 형성방식과 유사하다. 모두 우측의 글자와 동음자이며, ‘𪛗’은 본래 ‘돌이 부딪칠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이나 인터넷 상에서 ‘즐겁다’는 의미의 동음자 ‘乐’를 대체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𪛗’는 ‘梅’와 동음자이며 본래 나무에 피어 있는 꽃 두 송이를 나타내는 글자였으나 단순히 두 글자 ‘木’의 합체로 보고 ‘천진하다, 아주 멍청하다’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孖’는 ‘滋’와 동음자이며 ‘남자 쌍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예 (27)의 예들은 이체회의자의 형성방식과 유사한데 즉 다른 글자들이 상하로 합체되어 새로운 글자를 탄생시켰다. 발음과 본래 의미는 각 우측의 글자와 동일하나 인터넷 등에서 활용되는 의미는 두 글자를 분리하여 글자 그대로 한 글자씩 풀이하여야 이해할 수 있다. ‘𪛗’는 ‘火化(죽이다, 화장하다, 태우다)’, ‘𪛗’는 ‘强力(신체 건강하고 힘이 있다)’, ‘𪛗’는 ‘四张嘴同时叫(크게 소리 지르다)’, ‘𪛗’는 ‘入水→溺水(물에 빠지다)’, ‘𪛗’는 ‘二心(두 마음)’ ‘𪛗’는 주지하는 욕설 ‘王八’를 의미한다. 예 (28)의 예들은 합음축약형과 유사하나 합음축약형의 경우 유사한 발음의 기존 한자를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는 반면 여기서 소개되는 예들은 다른 글자를 차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글자가 상하로 합체된 그대로 활용되며, 두 글자의 합음 또는 유사한 음으로 발음한다. 각각의 의미는 ‘𪛗’는 ‘不要(하지 마라)’, ‘𪛗’는 ‘功夫(실력(있는 사람))’, ‘𪛗’는 ‘好心(선의)’, ‘𪛗’는 ‘只要(하기만 하면)’, ‘𪛗’는 ‘不好(좋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5)-(28)의 예들은 기존 해음이 발음의 유사성에 의해 생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의미에 따른 언어 변이로 신해음에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 중의 하나이며, 기존 어휘를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한 단어와 단어 사이의 코드 전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3. 해음의 인지 과정 분석

2장에서는 해음이 음소 또는 형태소, 단어, 구, 문장 간 즉 문장 내적 코드 전환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그 실현 양상에 따라 해음의 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즉 서로 다른 개념적 구조들이 하나의 새로운 구조로 통합되는 방식을 언어의 형태와 구조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면, 3장에서는 앞서 소개된 예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어 개념적 혼성(conceptual blending)이라는 인지 과정을 응용하여 사람들의 정신공간에서 해음이 생성되고 이해되는 과정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개념적 혼성 이론을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 1) 개념적 혼성 이론<sup>15)</sup>

개념적 혼성이란 입력공간<sup>16)</sup> 구축, 공간횡단 사상(cross-space mapping), 투사(projection)로 이어진 다소 복잡하고 강력한 인지 과정이다.<sup>17)</sup> 먼저 입력공간 사이에서 부분적 공간횡단 사상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입력공간에 공통된 총칭공간(generic space)에 의해 한정된다. 다음으로, 입력공간의 요소들이 혼성공간(blended space)에 선택적으로 투사되어 새로운 발현구조(emergent structure)가 형성되는데 이런 발현구조는 의미구성의 실마리가 된다. 그리고 입력공간, 총칭공간, 혼성공간은 하나의 망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개념적 통합 연결망(conceptual integration network)이라 한다.<sup>18)</sup>

개념적 혼성 이론에서 가장 두드러진 공간은 발현구조가 창조되는 혼성공간<sup>19)</sup>이다. 혼성공간은 입력공간의 요소들이 선택적으로 투사되어 만들어지고 선택적 투사(selective projection)는 입력공간들 사이의 공간횡단 사상에 의해 가능하며, 공간횡단 사상은 다시 총칭공간 때문에 가능하다. 즉 총칭공간은 공간횡단 사상의 전제조건이 되고, 공간횡단 사상은 선택적 투사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처럼 입력공간, 혼성공간, 총칭공간은 밀접하게 연결된 망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개념적 통합 연결망이다.

개념적 혼성이 발현구조를 창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입력공간 구축 → 입력공간 연결 → 혼성공간 형성 → 발현구조 창조

입력공간 구축은 언어 표현이 실마리가 되어 인지모형과 문맥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입력공간들 사이의 대응요소의 연결은 공간횡단 사상 때문에 가능하고, 혼성공간은 선택적 투사의 결과이며, 발현구조의 창조는 합성, 완성, 정교화에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개념적 혼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지 과정의 합이나 세 가지 인지 과정이 차례로 작용하는

15) 김동환, 『인지언역학과 개념적혼성이론』, 박이정, 2013.05, pp.467-482.

16) Turner(2001:16)는 입력공간을 영어로 conceptual influences, contributors, contributing spaces, inputs, parents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말한다. 김동환, 위의 책, p.471 재인용.

17) 강력한 인지 과정이라 함은 개념적 혼성으로 다양한 유형의 언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김중현(2000:5-6)을 인용해서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형태론과 통사론, 조건문, 은유, 관용어, 수어, 문학, 음악, 유머, 영화, 수학, 신경생물학 등을 들 수 있다. 김동환, 위의 책, p.471 재인용.

18) Fauconnier(1997)는 개념적 혼성이 발생할 때 충족되어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공간횡단 사상으로 입력공간들 사이의 체계적인 대응을 말한다. 둘째는 총칭공간으로 입력공간들이 공유하는 추상적인 구조와 조직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구조이다. 셋째는 혼성공간으로 입력공간<sub>1</sub>과 입력공간<sub>2</sub>가 선택적으로 투사되어 형성되는 공간이다. 넷째는 발현구조로 혼성공간에는 없는 발현구조가 생성되는데, 이것은 합성(composition), 완성(completion), 정교화(elaboration)의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합성은 각 입력공간의 내용물을 혼성공간으로 투사하는 것, 완성은 입력공간들에서 투사된 구조가 장기기억에 들어 있는 정보와 조화를 이룰 때 환기되는 특정 패턴을 혼성공간에 채우는 것, 정교화는 혼성공간에서 사건에 대한 가장된 정신적 수행을 가리킨다. 김동환, 위의 책, p.471-473 참고.

19) 혼성공간은 입력공간에서 몇 가지 요소 및 그 의미들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입력공간의 개념적 후손인데, 이것은 마치 아이가 부모의 생물학적, 문화적 후손인 것과 유사하다. 아이들이 비록 부모에게서 태어나도 그 자체의 주체성 혹은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혼성공간은 입력공간의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그 자체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혼성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독자성은 발현구조로 실현된다. 김동환, 위의 책, p.471 참고.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념적 혼성 = 입력공간 구축 + 공간횡단 사상 + 투사

아래에서는 몇 가지 예를 들어 해음을 생성하고 이해하는 인지 과정을 개념적 혼성이론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해음의 생성과 이해의 인지 과정

해음은 교체에서의 필요에 따라 발음이 같거나 유사한 단어를 활용하여 본래 글자를 대체하는 것으로 해음자를 보거나 듣게 되면 먼저 본래 글자의 인지모형을 인지대상 해음자에 순응시켜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해음자를 이해하려면 본래 글자도 해음자를 생성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심리활동 과정을 해음자의 인지과정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앞 장에서 교체형과 변이형으로 소개되었던 세 가지 예 ‘杯具-悲剧’, ‘海龟-海归’, ‘BC-白痴’를 중심으로 이들의 생성과 이해의 인지 과정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 (1) ‘杯具’와 ‘悲剧’

오자를 활용한 한자 해음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해음 구성방식으로 그 중 ‘杯具’와 ‘悲剧’는 오자를 활용한 한자 해음의 대표적인 예이다.<sup>20)</sup> 원래 ‘杯具’는 액체류를 담을 수 있는 용기 즉 컵을 가리키는 명사이고, ‘悲剧’는 비참한 결말로 구성되는 희극의 한 종류를 나타내거나 불행하거나 비참한 경우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이다.<sup>21)</sup> 발음의 유사성 이외에 관련성이 전무해 보이는 두 단어가 어떻게 해음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자.

먼저 입력공간들이 구축되는데<sup>22)</sup> 입력공간<sub>1</sub>은 ‘杯具’에 관한 것이고, 입력공간<sub>2</sub>는 ‘悲剧’에 관한 것이다. 입력공간<sub>1</sub>에서는 일차적으로 ‘悲剧’의 독음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많은 단어들-杯具, 被拒, 备具-등이 연상될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기타 속성들이 구축된다. 다음으로 입력공간의 대응요소들을 서로 연결하는 공간횡단 사상이 작용한다. 즉 입력공간<sub>1</sub>의 [杯具……],

20) ‘杯具’의 연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널리 유행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易中天이 『百家讲坛』에서 「品三国」을 논할 때 과장된 표정으로 ‘悲剧啊’라고 말하는 장면이 캡처되고 다양하게 묘사되어 여러 사이트에 퍼지면서 부터이다. (내용 출처: <http://www.baidu.com>(검색일:2018.08.10))

21) ‘杯具’는 용기 ‘컵’을 나타내는 명사로서 주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활용되는 단어였으나, 현재 그 용법이 확장되어 문장 속에서 동사, 형용사, 부사로 술어, 한정어, 보어 등 다양한 문장성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때의 의미는 ‘悲剧’와 같이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상황’을 나타내는데, 이는 ‘悲剧’의 용법과 의미가 ‘杯具’에 접목된 것으로 ‘悲剧’의 용법의 제약을 받는다.(陈培(2010), 「网络谐音流行语的生成和理解机制」, 『湖北经济学院学报(人文社会科学版)』, 第7期, p.130 참고) 다만 본 논문은 해음 ‘杯具’의 인지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통사 용법 등과 관련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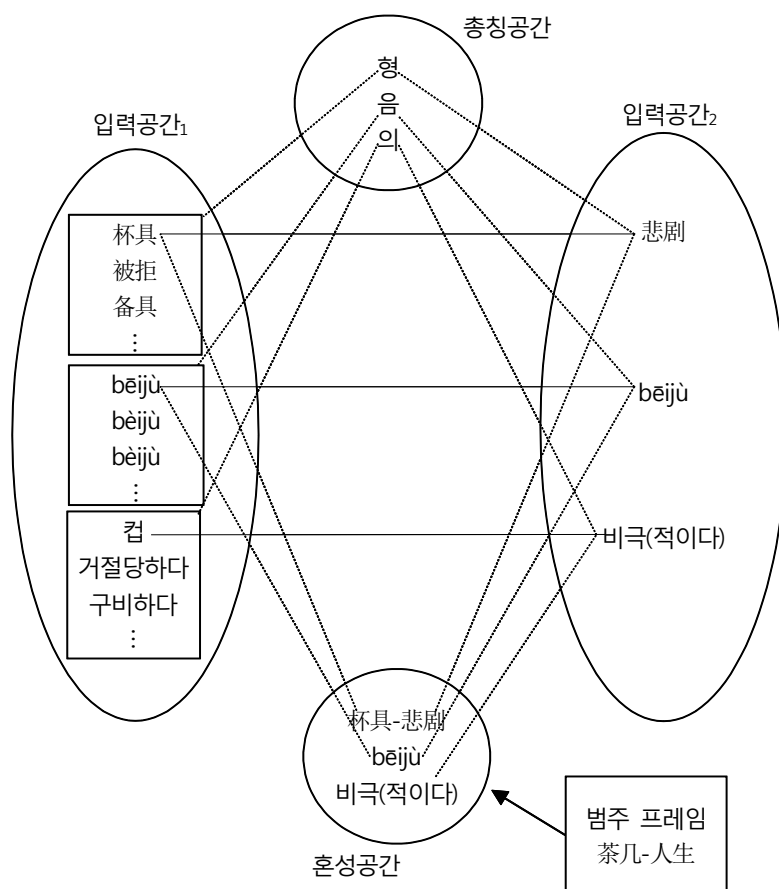
22) 입력공간을 구축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실체, 실체의 속성, 실체들 간의 관계로 나눌 수 있다. 김동환, 위의 책, p.472.

[bēijù], [컵……]은 입력공간<sub>2</sub>의 대응요소 [悲劇], [bēijù], [비극(적이다)]와 각각 사상된다. 공간형단 사상은 총칭공간에 의해 한정되는데, 입력공간들에 공통된 요소들로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 [형], [음], [의]를 포함한다. 혼성공간에서는 각 입력공간에서 투사된 [杯具]와 [悲劇]가 하나의 의미로 융합되고, 하나의 발음 [bēijù]로 융합된다. 입력공간에서 연상된 여러 단어들 가운데 [杯具]가 혼성공간으로 투사되는 이유는 ‘悲劇’과 독음이 동일함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단어들 가운데 ‘杯具’가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로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것도 있겠지만, 유사(analogy) 중추적 관계<sup>23)</sup>에 의해 두 입력공간 사이의 대응요소들이 연결되기 때문이다. ‘비극(적이다)’는 의미를 지닌 ‘悲劇’를 보거나 듣게 되면 ‘人生就像一个茶几, 上面摆满了杯具’와 같은 문장을 연상할 수 있는데<sup>24)</sup> 다시 말해 두 개의 개념적 통합 연결망에는 ‘茶几, 人生’이라는 역할을 가진 동일한 범주 프레임이 들어있고,<sup>25)</sup> 또 한 연결망에는 값 ‘杯具’가, 다른 연결망의 입력공간에는 ‘悲劇’라는 다른 값이 있다. 두 연결망 속의 혼성공간들은 이 두 입력 역할이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라는 연결자로 연결된다. 이는 하나의 개념적 혼성 과정이며, 혼성에 참여하는 두 의미 중 최종적으로 하나 혹은 두 개만이 혼성공간에 투사되고 개념적 혼성을 거쳐 새로운 구조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혼성 과정에서 본래 글자와 독음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글자들은 형식만을 제공하고 의미는 본래 글자의 의미를 연용하며, 최종적으로 형식과 의미가 혼성되어 새단어가 형성된다. 즉 ‘杯具’의 형식과 ‘悲劇’의 의미가 혼성공간에 투사되어 개념적 혼성을 통해 마침내 새로운 해음 ‘杯具’(悲劇)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인지언어학의 개념적 혼성이론을 이용하여 해음 ‘杯具’가 생성되고 ‘悲劇’로 이해되는 인지과정을 살펴보았는데 그 인지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3) 중추적 관계는 개념적 혼성 이론에서 다양한 유형의 연결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두 개의 대응요소나 특성을 일치시키는 연결이다. 중추적 관계는 크게 외부공간 중추적 관계와 내부공간 중추적 관계로 나누고, 그 중 외부공간 중추적 관계는 시간(time), 공간(space), 표상(representation), 변화(change), 역할(role), 유사(analogy), 비유사(disanalogy), 부분-전체(part-whole), 원인-결과(cause-effect), 동일성(identity) 중추적 관계가 있다. 내부공간 중추적 관계로는 특성(property), 유사성(similarity), 범주(category), 의도성(intentionality), 유일성(uniqueness)이 있다. 김동환, 위의 책, pp.490-500.

24) 王宏军, 위의 논문, p.77.

25) 이 범주 관계는 ‘인생은 찻상이다’와 같이 ‘A is B’ 유형이다.



<그림1> '杯具'와 '悲劇'의 개념적 통합 연결망<sup>26)</sup>

## (2) '海龟'와 '海归'

개혁개방이후 중국에는 해외 유학에서 돌아온 '海归'가 대량 등장하면서 '海X' 계열로 유추되는 새로운 단어들도 등장하였다.<sup>27)</sup>

26) 개념적 통합 연결망에서 공간화단 사상은 실선으로 표시되며, 각 입력공간의 요소들이 모두 사상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상은 부분적이다. 공간화단 사상에 의해 연결된 요소들이 혼성공간으로 투사되는 것은 점선으로 표시된다. 입력공간의 요소들 모두가 혼성공간으로 투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투사는 선택적이며, 입력공간의 요소들이 혼성공간에서 융합되기도 하고 융합되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혼성공간에는 입력공간에서 투사되지 않는 새로운 요소들이 형성되어 발현구조가 창조되는 데, 이것은 네모상자로 표시된다. 김동환, 위의 책, pp.474-475 참고.

27) 신해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조합능력으로 일부 해음 가운데 '海X'류처럼 새로운 해음자가 생성된 후 유사한 어휘들이 연쇄적으로 대량 생성되어 일련의 어족(word family)을 형성하는 예가 보인다. 예를 들어, '逗你玩' (逗你玩)류('蒜你狠', '姜你军', '油你玩' 등), '围脖' (微博)류('织围脖', '围脖作坊', '散户围脖', '织男', '织女', '围脖潮人', '白领围脖', '新浪围脖', '脖友', '脖主', '脖领儿', '脖梗儿', '长脖鹿' 등)이 그러하다. 周翠英·姜昌求, 「新谐音现象特徵分析」, 『中国人文学』, 第48辑, 2011, pp.95-96.

(29) 我觉得‘海归’真正的不是变成‘海待’，你可以成为一个海鸥，在这两个国家之间自由翱翔，这才是一个真正出国留学者的最终的前景。(尹海良：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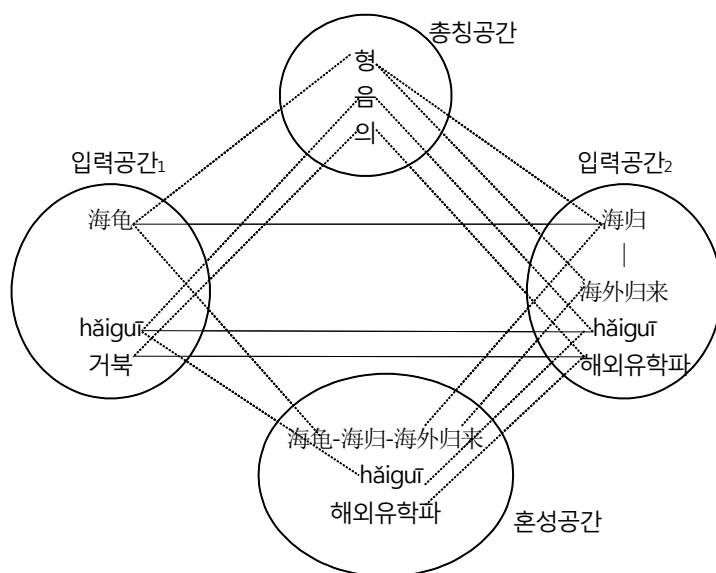
개혁개방 초기에 ‘海归’(海龟)는 ‘海外’와 ‘归来’의 합성어로, ‘지식, 성공, 엘리트, 높은 연봉, 보장된 취업’ 등으로 대변되는 말이었다. 반면 ‘龟’는 중국 사람들에게 상스럽고 길하며 신령스러운 형상으로 새겨져 있는 동물로 사람들은 ‘海龟’로 ‘海归’를 해음하면서 해외 유학 또는 해외 근무 후 귀국한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중국경제와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해외 유학과들도 시장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취업이라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외 유학에서 돌아왔으나 구직이 순조롭지 못해 취업 대기 중인 사람들을 일컬어 우스개로 ‘海待’(海帶)라 부른다.<sup>28)</sup> 그런데 일련의 ‘海X’류의 신해음을 양산해 내게 된 계기가 된 ‘海归’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지되는 것일까?

먼저 입력공간이 구축되는데 입력공간<sub>1</sub>은 ‘海龟’에 관한 것이고, 입력공간<sub>2</sub>는 ‘海归’에 관한 것이다. 다음으로 입력공간의 대응요소들을 서로 연결하는 공간횡단 사상이 작용한다. 즉 입력공간<sub>1</sub>의 [海龟], [hǎiguī], [거북]은 입력공간<sub>2</sub>의 대응요소와 각각 사상된다. 공간횡단 사상은 총칭공간에 의해 한정되는데, 입력공간들에 공통된 요소들로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 [형], [음], [의]를 포함한다. 혼성공간에서는 각 입력공간의 [海龟]와 [海归]가 하나의 의미로 융합되고, [hǎiguī]가 하나의 발음으로 융합된다. 사실 [海龟]와 [海外归来]를 논리적으로 대응시키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객관적인 비논리성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혼성공간이다. 아래 개념적 통합 연결망에서 볼 수 있듯이, 입력공간<sub>1</sub>의 [海龟]와 입력공간<sub>2</sub>의 [海归]는 서로 대응요소이고, [海归]는 [海外归来]와 환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sup>29)</sup> 즉 입력공간<sub>1</sub>에는 [海外归来]가 없지만 혼성공간에는 이 두 요소가 들어 있으며, 환유적 연결에 입각하여 입력공간의 비대응 요소들을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海龟’의 형식과 ‘海外归来’의 의미가 환유적 연결을 통해 혼성공간에 투사되어 개념적 혼성을 통해 마침내 새로운 해음 ‘海龟’(海归)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개념적 통합 연결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8) 尹海良, 「新时期‘海X’系列新词及构词法思考」, 『辞书研究』, 第6期, 2010, p.174.

‘海X’ 계열로 양산된 단어들은 이 외에도 ‘海找(海藻): 해외 유학에서 귀국 후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한 사람, 海亏(海葵): 해외에서 귀국한 초창기에 창업으로 성공하였으나 결국 자본을 다 잃어버린 사람, 海剩(海参): 직장 경험이 전무하고 직업을 찾지 못하는 해외 유학과, 海师(海狮): 유학과 중 거물로 주로 학술계 권위자, 海炒(海草): 해외에서 귀국하였으나 학력이 낮아 직업을 찾기 힘든 유학과를 일컫음’ 등이 있다. 尹海良, 위의 책, p.176.

29) 환유적 연결이란 전체가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과 인접적으로 결합해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김동환, 위의 책, p.488.



<그림2> '海龟'와 '海归'의 개념적 통합 연결망<sup>3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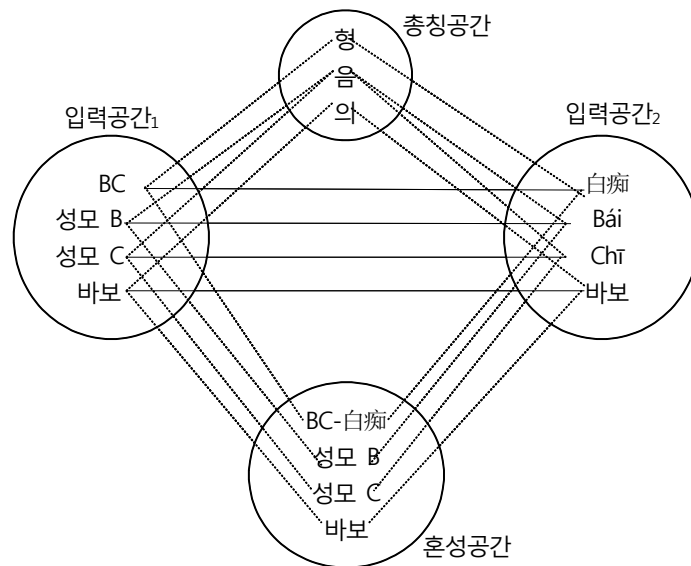
### (3) 'BC'와 '白痴'

병음축약형 해음자는 병음으로 구성된 중국어 각 음절의 성모를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사용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네티즌들이 온라인 또는 문자로 의사소통을 할 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감정 표현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외에도 'BD(笨蛋), BT(变态), DD(弟弟), FB(腐败), GG(哥哥), JJ(姐姐), MM(妹妹), PMP(拍马屁)……' 등이 있다.

'BC'는 어음 단위 두 음절의 성모 부분만을 이용하여 '白痴'라는 단어의 전체를 나타낸다. 소위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두드러지는 특징이 인지되어야 하는데 'BC'는 '白痴'의 첫 성모로 음절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음절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단위이다. 'BC'가 '白痴'로 인지되는 과정도 위 여러 예들처럼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입력공간<sub>1</sub>은 'BC'에 관한 것으로, 입력공간<sub>2</sub>는 '白痴'에 관한 것으로 구축된다. 다음으로 입력공간의 대응요소들을 서로 연결하는 공간횡단 사상이 작용한다. 즉 입력공간<sub>1</sub>의 대응요소는 입력공간<sub>2</sub>의 [白痴], [Bái], [chī], [바보]와 각각 사상된다. 혼성공간에서는 각 입력공간의 [BC]와 [白痴]가 하나로 융합된다. 이때 입력공간<sub>2</sub>의 모든 음절 요소가 혼성공간으로 투사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두 [성모 B], [성모 C]가 하나의 발음으로 융합된다. 이와 같이 부분-전체(part-whole) 중추적 관계라는 연결자를 통한 통합은 매우 일반적이다. 한 입력공간에서 [성모 B], [성모 C]가 투사되고, 다른 입력공간에서 [Bái]와 [chī]가 투사되어

30) <그림2>에서 입력공간<sub>2</sub>의 [海归]와 [海外归来]를 연결하고 있는 기호 '|'는 둘 사이의 관계가 환유적임을 나타낸다.

혼성공간에서 융합되며, [BC]와 [Báichī] 사이의 부분-전체 중추적 관계는 혼성공간에서 유일성으로 압축되고 발현구조를 형성하며 이러한 개념적 혼성을 거쳐 'BC(白痴)'라는 새로운 해음이 인식되는 것이다.



<그림3> '白痴'와 'BC'의 개념적 통합 연결망

#### 4. 결론

인터넷 용어와 광고 용어, 청소년 용어, 신문과 뉴스 표제 등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활용되는 중국어의 해음 현상은 사실 언어의 포용력, 개방성 및 다원화를 잘 드러내어주는 수사 현상으로, 사회, 문화 등 여러 요소들과의 접촉을 통해 끊임없이 창조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언어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본 논문은 해음이 어떻게 생성되고 이해되는지 그 인지과정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는데, 먼저 언어의 형태와 구조의 관점에서 중국어 해음을 문장 내 코드 전환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교체언어의 실현 양상에 따라 교체형과 변이형으로 나누어 그 유형을 살펴보았다. 해음은 중국어 보통화 어휘 사이, 보통화와 방언, 중국어와 영어 혹은 숫자 사이에서 음소, 형태소, 단어, 구, 문장 등 여러 범주의 경계에서 코드 전환이 실현되는데 그 양상에 따라 교체형은 오자형, 동음이의형, 방언형 및 숫자교체형, 영어교체형으로, 변이형은 축소형과 모방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나아가 인지언어학의 개념적 혼성 이론을 해석의 근거로 삼아 앞선 유형 분류에서 소개한 해음의 예 가운데 상용되는 '杯具-悲劇', '海龟-海归', 'BC-白痴'를 중심으로 해음의 생성과 이



해의 인지과정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음 현상은 ‘해음 감지→발음의 유사성을 매개로 한 연상 작용→본래 글자 추출→입력공간 구축→공간형단 사상을 통한 입력공간 연결→투사를 통한 혼성공간 형성→개념적 혼성과정을 통한 발현구조 창조→해음의 생성과 이해’의 인지 과정을 거침을 알 수 있었다.

본문에서는 극히 일부의 예만을 들어 분석하고 있지만, 개념적 혼성 이론을 바탕으로 제반 해음 현상을 폭넓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이후에도 지속될 해음의 이해와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강현석 외 9명, 『사회언어학 :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 글로벌콘텐츠, 2014.
-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 박이정, 2013.
- 김선호, 「한국 화교의 한중 코드전환 구조의 분석」, 『어문학』, 제139집, 한국어문학회, 2018.
- 김수영, 『中國 諧音 民俗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종호, 「중국어 해음현상의 고맥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중국어문논역총간』, 제26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10.
- 김중현, 『Fauconnier의 정신공간 이론을 통한 국어 의미 구조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재승, 「중국어의 諧音 사용에 관한 소고」, 『인문논총』, 13권,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 전선영, 『중국 해음 문화와 이를 활용한 중국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조기정, 「歇后語에 사용된 諧音 考察」, 『중국인문과학』, 제21집, 중국인문학회, 2000.
- 한명숙, 「諧音에 나타난 中國文化 考察」,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東照二 著, 鈴木潤·朴文誠 共譯, 『재미있는 사회언어학』, 보고사, 2001.
- 周翠英·姜昌求, 「新諧音现象特征分析」, 『中国人文科学』, 제48집, 중국인문학회, 2011.
- 周 虹, 「漢語諧音與民俗物化象征—以漢族婚禮風俗爲中心」, 『중국어언어연구』, 제30집,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09.
- 陈 培, 「网络谐音流行语的生成和理解机制」, 『湖北经济学院学报(人文社会科学版)』, 第7期, 2010.
- 吉益民, 『网络变异语言现象的认知研究』, 南京师范大学出版, 2012.
- 王宏军, 「网络谐音词的语用认知」, 『嘉兴学院学报』, 第2期, 2018.
- 杨思源, 「认知语言学视角的谐音广告语」, 『语文学刊』, 第5期, 2012.
- 尹海良, 「新时期‘海X’系列新词及构词法思考」, 『辞书研究』, 第6期, 2010.
- Fauconnier, *Mapping In Thought and Language*, Cambri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Turner. M, *Cognitive Dimensions of Social Science*,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Hamers, J. F&Blanc. M. H. A, *Bilinguality and bilingualism*, Cambri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이해란 외 공역, 『2개 언어 상용과 그 이론』, 한국문화사, 199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百度 (<http://www.baidu.com/>)

##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국문	해음, 언어 변이, 코드 전환, 인지언어학, 개념적 혼성 이론		
	영문	Homophonic Words, Language Variation, Code-Switching, Cognitive Linguistic, Conceptual Blending Theory		
<div>Study of the Cognitive Process of Chinese Homophonic Words</div> <div>Jung, Eun</div> <p>This study began with the curiosity about the cognitive process concerning how homophonic words are produced and understood. First, in terms of the form and structure of the language, this study considered Chinese homophonic words the realization of intra-sentential code-switching and examined their types, dividing them into replacement type and variation type according to the embedded language. Code-switching of homophonic words is realized in the boundaries of various categories, such as the phoneme, morpheme, word, phrase, and sentence between Chinese mandarin vocabularies, between mandarin and dialect, between Chinese and English or between Chinese and number. According to the aspe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m, dividing the replacement type into misspelled word, homonymous construction, dialect, number replacement and English replacement and the variation type into reduction type and imitation type.</p> <p>Moreover, with a conceptual blending theory in cognitive linguistics as the ground of interpret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cognitive process of the production and understanding of homophonic words, focusing on '杯具(bēijù)-悲剧(bēijù)', '海龟(hǎigūi)-海归(hǎiguī)' and 'BC-白痴(báichī)', centering around of the examples introduced in the above classification of the types. In general, it was noted that the phenomenon of homophonic words went through the cognitive process as follows: "Detection of homophonic words → Association mediated by the similarity of pronunciation → Extraction of the original character → Construction of conceptual influences → connection of the conceptual influences through cross-space mapping → Formation of a blended space through projection → Emphasis of an emergent structure through a conceptual blending process → Production and understanding of homophonic words."</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정은 / 鄭恩 / Jung, Eun		
	소 속	신라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중어중국학전공		
	Em@il	jungeun@silla.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8월 31일	심 사 일	2018년 09월 06일
	수 정 일	2018년 09월 21일	게재확정일	2018년 09월 24일